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정하였고 그곳으로 궤를 메어 올렸습니다. 이 후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워 하나님의 궤를 영구히 그곳에 두고 또한 그 성전에서 제사도 드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세우실 '한 왕조'에 대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후에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세워질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대상 13장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듯이 외향적으로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다윗이 왜 이렇게 성전을 사모하고 있는가라는 측면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분께 드리는 찬송이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믿음의 고백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그 분의 성도로 불리게 된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전이라는 건물을 화려하고 웅장하게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29장10절에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송축"이라는 말을 두 번 볼 수 있는데 이 송축이라는 의미의 히브리어는 '바라크'라는 단어로써 이 말은 '무릎을 꿇다', '찬송하다', '찬양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이렇듯 다윗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지마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동시에 자신이 찬양을 드리고 찬송을 드려야 하는 대상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시편 145편1절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라는 다윗의 찬송 시는 이러한 다윗의 고백을 잘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며 나는 그 분을 높여 드리며 영원히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찬송하리라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분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일까요? 먼저는 다윗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만 왕의 왕이시며 만 주의 주님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말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라는 고백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할 때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이방 신들은 가짜라는 의미입니다. 창조주가 동시에 여러 명(?)이 있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창조주라는 존재는 아무도 만든 사람이 없는, 오직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입니다(출3:14-15). 오직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오직 그 여호와 하나님께만 우리의 찬송을 올려드리며 영원히 그 분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장11절에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라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에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왕하19:15)"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고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15절에서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지금 말씀 드린 이와 같은 믿음과 고백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고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번째는 오늘 본문의 29장 14절과 16절에 나타나있듯이 "다 주의 손에서 왔나이다" 하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여 여러 전리품들을 얻었고 많은 포로들도 끌고 왔습니다. 주위의 나라들은 다윗의 이러한 명성을 듣고 공물을 바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역대상에도 기록이 되어있듯이 다윗의 주위에는 그를 돕는 많은 군사들도 있었습

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서 온 것을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할 때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며 그 백성들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14절)."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니 주님께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고 감사하며 드린 것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린 것 뿐이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온 백성의 기쁨이었고 또한 다윗의 기쁨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9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 도리어 듣는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고 있습니다. '헌금 설교를 들으면 시험에 든다'는 분도 계십니다. 이 모든 이유가 바로 그 동안 일부 교회들이 불투명한 회계로 성도들에게 걱정을 끼쳤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하나님의 성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물질을 드려야 하고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하며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사랑과 헌신을 그 분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릴 수 있고 나의 인생도 주님을 위해 기쁘게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때문'입니다(18절). 우리들이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며,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으니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을 고백을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며 동시에 우리들의 측면에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그 분께서 은혜로 모든 것을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출6:7).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저주를 받게 하시고 화목제물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17:3)."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주 이신 것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그 분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인 된 본성과 나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모습뿐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분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그 분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8절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요 사랑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시와 찬미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들도 우리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을 날마다 드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분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감사의 찬송을 기쁨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이켜 그 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